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하는 소리 있어(찬44/새1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조부연 장로 2부/윤태경 집사 3부/정병철 장로 4부/김유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얼마나 아프셨나(진선미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사사기(Judg.) 12:1-7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5:1-9

말씀 Message 1, 2, 3부.....Rev. Daniel Bae **배홍수 목사**

억울한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4) 세 번째 표적: 네가 낮고자 하느냐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부/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 3부/예수의 길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Daniel Bae **배홍수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40대에 다시 육아를 하며 느끼는 것

Reflections on Parenting Again in My 40s



배홍수 목사 / Rev. Daniel Bae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다섯째 '노아'가 태어난 지 벌써 거의 백일이 되어갑니다. 베델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넷째가 태어난 지 거의 6년이 지나서 이제 40대가 되어 육아를 다시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와 내내는 전보다 좀 더 여유롭게 즐기면서 육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보면 생명의 신비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생아에게는 놀라운 만큼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바로 엄마의 젖에 대한 욕구입니다. 모유(또는 분유)를 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아기가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노아 역시 태어났을 때에 비해 벌써 몸무게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어쩌면 신생아에게 이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유에 대한 욕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욕구는 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거나 달랠 수 없습니다. 오직 젖을 먹을 때에만 그 울음이 그칩니다. 둘째로 이 욕구는 자주 돌아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수유하는 신생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마다 수시로 먹고, 지금은 3-4시간에 한 번은 수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위장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소화가 빠르다는 의미이겠지요. 셋째로 수유를 할 때는 거기에 온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어느 날 온 힘을 다해 모유를 한 모금 한 모금 넘겨 삼키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왜 저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렇게 더딘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찢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집요하고 자주 먹어야 하고, 온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모유를 사모하는 그 모습과 말씀에 대한 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길 원합니다. 40대에 말씀에 대한 '신생아'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제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길 원합니다. 올 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It has already been nearly a hundred days since our fifth child, Noah, was granted to our family. Thanks to the prayers and love of our Bethel congregants, he is growing healthy and strong. It has been nearly six years since our fourth child was born, and now that I am in my 40s and parenting again, I am filled with new emotions. My wife and I are enjoying the joys of parenting with a bit more leisure and ease than before. Above all, there is a spiritual lesson I am learning through this time.

When looking at a newborn, one cannot help but marvel at the mystery of life. Every newborn possesses an incredibly powerful desire: the craving for mother's milk. It is because of this intense desire for breast milk (or formula) that a baby, who appears so small and fragile, not only sustains life but grows at an astonishing rate. Noah's weight has already doubled since he was born. Perhaps for a newborn,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his instinct.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to this craving for milk. First, this desire is persistent. It cannot be replaced or soothed by anything else. Only when feeding does the crying finally stop. Second, this desire returns frequently. No newborn feeds only once a day. In the beginning, he fed every hour; now, after three months, he must be fed every three to four hours. This indicates that his stomach is still small and his digestion is just that rapid. Third, when he feeds, he concentrates all of his focus and energy on it. In that moment, he has no interest in anything else. He pours all his strength into suckling.

One day, while watching him swallow the milk mouthful by mouthful with all his might, I felt ashamed and moved to repentance. Does a certain scripture come to mind?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1 Peter 2:2). It was a moment of realizing why my own growth and maturity in faith have been so slow. I felt a stinging in my heart. How much do I crave the Word—that "pure spiritual milk"—which is meant to grow my faith? As I watched Noah, my own attitude toward the Word stood in stark contrast to his persistent, frequent, and single-minded craving for milk. I wish to turn back, even now. In my 40s, I want to become a "newborn" regarding the Word. I want to become a disciple who craves the Word like this, so that I may grow toward salvation. This spring, I hope that we all become spiritual newborns, longing for the Word of God and growing through His grac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배홍수 목사

억울한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사기 12:1-7

적용하기



1.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언제 섭섭함을 느끼나요? 최근에 섭섭하거나 억울한 때가 있었나요?

2. _____ 입다

a.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떤 부당한 취급을 당했나요? (12:1-4)

b. 내가 입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 _____ 입다

a. 입다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i.

ii.

iii.

b. 입다와 같이, 나는 어떤 것을 자주 잊고 사는지 나누어 봅시다.

4. _____ 입다

a. _____ 을 잊고, _____ 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입다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나요?

b. 나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5. 입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게 되나요? 그 분을 묵상할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 적용찬양: (1부)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 3부)예수의 길

사역
미디어팀

조용히 빛을 전하는 사람들

'레디, 액션!' 저희 베델교회에 방송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배당 2층, 어두운 자리에서 조명이 켜지고 소리가 다들 어지러지며 화면이 정동됩니다. 화려한 빛과 단단한 음향, 또렷한 영상이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모아 결국 하나의 예배로 이끕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미디어팀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미디어팀이 무슨 일을 하나요?"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 우리가 보고 듣는 거의 모든 순간 뒤에 미디어팀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주일예배는 물론, 성도님들께서 매일 기다리시는 QTin 아침 영상 메시지와 각종 행사 및 특별 이벤트 영상까지 기획하고 제작하며 관리하는 일, 더 나아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기록하고 선교지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남기는 일도 미디어팀의 몫입니다.

음향과 조명, 카메라와 자막까지 매 예배마다 챙겨야 할 것은 끝이 없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봉사자들과 간사님들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유롭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방송실에서 큐 사인에 맞춰 자막을 올리고, 카메라에 담긴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깊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백, 수천 불을 호가하는 장비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저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겠다' 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한 폭의 화면에 의미를 담아 보는 기쁨을 느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희 베델 미디어팀은 앞으로도 모든 예배와 사역의 현장이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선포되고 예

배의 감동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조용히 뒤에서 그 빛을 전하겠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영상들 사이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베델 미디어팀이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집사



사역
환우사역

소망의 발걸음



베델교회에서 환우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에는 예방사역과 양로병원사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단순히 '도움'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아픈 사람과 외로운 사람, 약한 사람을 늘 찾아가시고 품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걷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마음이 무너진 자를 지나치지 않으셨으며,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며, 베델교회가 환우사역을 통해 복

음의 따뜻함을 실제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서로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자신도 이 사역을 통해 더욱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닮은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 곁에 '가까이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병상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할 수 있는, 늘 열려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손길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역이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교회의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사역은 단순히 방문하는 사역이 아니라, 소망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따뜻한 동행으로 곁에 있어 드릴 때, 주님께서 '너는 잊힌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듣고, 지혜롭게 말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도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티나 목사

Come&See 50 특집 1

축하 메시지

에벤에셀의 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2)

반세기. 인간에게는 한 세대의 시간이요, 교회에게는 믿음의 순례였습니다. 베델교회 50주년의 소식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반세기 동안 베델교회 안에서 펼쳐졌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1976년 작은 예배로 시작된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분의 담임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토대를 놓으시고,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하시며, 비전을 따라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변함없이 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 약속은 강단을 넘어 삶의 자리마다 살아 움직였습니다. 2026년, 50주년을 맞으며 선포된 "Come and See, 와 보라"는 지난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한 믿음의 초청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넘어 디아스포라를 품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교인 QT 사역의 정착,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사역, 학교

설립의 비전. 그리고 영적, 질적, 양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름다운 어바인 땅에 세워진 베델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영혼을 품어왔습니다. 눈물의 섬김과 묵묵한 헌신이 오늘의 50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세대는 지나가도 이 고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100년에도 또 다른 세대가 이 돌 앞에서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대를 넘어 영원까지 찬송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유한성 목사

예배
엘리사 새벽기도회

은혜목장만의 절실한 기도시간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향한 발걸음.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을 운전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토해내고픈 간절함보다 지금 가져가는 간식이 모두에게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으리까 하던 제자들의 걱정스러운 모습이 이랬을까? 은혜목장 식구분들 간식을 챙겨 오던 나에게 엘리사 새벽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호소가 마음을 찢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은 나에게 '난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들렸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에 난 깨어졌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던 주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해 봅니다.

성주영 집사

미국 이민 전후로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나는 미국 생활의 대부분을 교회 생활과 함께했습니다. 생활보다도 생존을 우선시하며 여러 변명을 앞세워서 교회의 행사나 모임 등을 자연스럽게 잘도 빠져나가면서 어찌면 내 일상을 잘 지켜가며 얼마 전 퇴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 기도회 부정적이던 내가 거의 떠밀려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은혜목장의 배홍수 목사님의 진솔한 기도와 설교가 부정적이던 나의 마음에 단비를 적셨습니다.

새벽기도의 소규모 예배가 주일예배보다 오히려 내겐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고, 교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눈에 들어오며 예배 후에도 한쪽에서 가졌던 은혜목장만의 절실한 기도는 소박하지만 학창 시절의 신실했던 기억을 회상케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간식을 준비하시던 도우

미 권사님의 너무나 당연한 듯 익숙한 봉사의 모습도 놀라웠고, 무엇보다 그 새벽에 젊은이들이 새벽 예배 참석 후에 일터로 가는 모습도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 세대와 그리고 노인들의 세대가 너무 조화롭게 이른 새벽을 시작하는,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은 베델의 힘이며 뒷집을 지던 내가 오늘도 앞으로 두 손을 모으며 겸손하게 새벽을 시작해 봅니다.

육상운 집사



사역
베델기독교

은혜받은 자들의 자리

2월 12일 목요일 저녁,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7기 베델기독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3년 2월 첫 기수를 시작한 이후 어느덧 7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번 기수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총 16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기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개강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사와 정갈한 디저트, 봄의 향기가 은은히 느껴지는 단아한 테이블 세팅, 그리고 예배 후 말끔히 정리해 주신 설거지팀의 섬김까지 더해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한 워십찬양 시간에는 찬양 인도에 맞춘 울동이 더해져 참가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배의 기쁨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피아노 반주 위에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져 찬양의 깊이를 더했으며,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델기독교는 14주 동안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개인기도와 중

보기도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기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개강예배에서 손용주 목사님께서서는 마가복음 4장 35-41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을 두 가지 이유를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 평생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자신 있던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신뢰는 기도의 자리, 곧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통해 깊어짐을 강조 하셨습니다.

또한 우유를 마신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듯,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비유가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7기 기독교를 통해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개강예배였습니다.

베델뉴스팀



예상
둘로스 수양회

두번째 걸음

이번 수양회에 올라가며 제 안에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셀목자로 세워졌지만 리더십에 대한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배우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The Second Mile: Beyond Me'였습니다. 나는 기꺼이 누군가의 두 번째 마일을 함께 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용기 있게 나누는 담대함,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옮기는 결단,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물에 빠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길은 혼

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드시고 둘로스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세워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두 번째 마일을 걷는 리더로 서겠습니다.

류다빈(청1)

이번 둘로스 리더 수양회를 통해 제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제 의로움이나 결단의 결과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삶을 배웠습니다. 또한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려움 속으로 걸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신앙은 안전한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라"는 음성에 순종해 한 걸음을 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안의 근거로 삼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위해 Second Mile을 걷는 셀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가현(청3)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운유/성감: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식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식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식채플: 이형석 목사
- 예식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식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용관: 오춘란

사역광고

성인 세례 및 입교식

세례는 모든 성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 주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능력은 내 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례자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입교는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결단과 헌신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는 예식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격려받는 날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귀한 예식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 ▶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 ▶ 교육 일시/장소: 3월 8일(주일), 3월 1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살롬채플 (CI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 진행)
- ▶ 문답 일시/장소: 3월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 세례/ 입교식: 3월 29일(주일) 11시(3부 예배 중),본당
- ▶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배홍수 목사 (949)708-4175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월)	3/15:	①부-이상원	②부-이봉윤	③부-이상노	④부-이가현
	3/22:	①부-이승호	②부-주진철	③부-이명환	④부-정용익
	3/29:	①부-탁정호	②부-이근제	③부-이원희	④부-최유진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3,4월)	3/14:	박영선	3/21:	김지광	3/28:	류정빈	4/4:	박기승
-----------------------	-------	-----	-------	-----	-------	-----	------	-----

강단꽃(3월)	3/8:	강정선, 서은숙, 선상균	3/15:	서은숙, 윤미경, 한동희	3/22:	배사라	3/29:	박선경
---------	------	---------------	-------	---------------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Charles Oh(아비빈후과), 간호사-장한나 다음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김리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헌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OICOS 예배 및 엘리사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예술행사 중심으로 엘리사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3월 10일(화)~13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예살(강술로몬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3월 14일(토) 오전 6시, 본당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3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성인 세례/입교 교육과 문답** 세례/입교 대상자들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례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BYM, CIM, JM, 소망부, 예살 세례/입교 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서별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7면 참고) 교육 일시/장소: 3월 8일(주일), 3월 1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살롬채플 문답 일시/장소: 3월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배홍수 목사 (949)708-4175

◆ **교회학교 온타임 캠페인** 오늘 3월 8일(주일)부터 4월 5일(주일)까지 5주간 교회학교에서 온타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5주 동안 매주 정시에(9시, 11시) 예배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상상이 있습니다.

◆ **예살 청2공동체 수양회** 청2공동체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Rooted'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습니다. 예수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성숙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3월 20일(금)~22일(주일), 갈릴리 수양관 문의: 최요셉 전도사 (657)319-5533

◆ **The Giving 컨퍼런스 & 콘서트** 실천하는 나눔과 지역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CA) 합창단을 비롯한 지역사회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눔이 주는 기쁨과 감동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3월 14일(토) 컨퍼런스(오후 4시 시작), 콘서트(오후 5시 시작) 장소: 열바인 온누리교회(17200 Jamboree Rd) 문의: 이요셉 집사 (213)422-1642

◆ **선교사역 안경기부** 선교지에서 안경 사역으로 배포할 미사용 새 제품 선글라스를 기부해 주세요. (Used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 3월 15일(주일)까지 장소/방법: 주일-코트야드 Lost and found 부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주중-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문의: 김윤근 집사 (949)966-1135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에 많은 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인턴(2세)과 봉사자(1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3일(월)~7월 16일(목), 박성남 장로 (949)697-8531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2026-27학년도 신입생 등록**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교육을 통해 지혜와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세워 갑니다. 모집 대상: TK-9학년 (2026년 가을학기 기준) TK 지원 자격: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가 되는 학생 문의: Admin Office (949) 854-4013, admin@bethelclassical.org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기도해 주세요** 멕시코 일일 선교가 3월 14일(토)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영국진/조운정 성도 가정에 딸 염하운(Ellie)이가 지난 3월 5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영수 성도님(김진화 권사의 부친, 최동홍 권사의 장인)께서 3월 1일(주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정정량 집사님(정혜숙 권사의 남편)께서 3월 6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Danger of Feeling Wronged Judges 12:1-7

1. When do we feel resentment at home or at church? Have you experienced a time recently where you felt wronged or treated unfairly?

2. _____ Jephthah

a. How did the people of Ephraim wrong Jephthah? (Judges 12:1-4)

b. What would I have done if I were in Jephthah's position?

3. _____ Jephthah

a. Let's summarize what it was that Jephthah had forgotten.

i.

ii.

iii.

b. Let's share what things we often forget, just like Jephthah.

4. _____ Jephthah

a. Having forgotten _____ and failing to escape the trap of _____, what does Jephthah change into?

b. Let's share whether we see these same traits within ourselves.

5. Looking at Jephthah, who are we led to meditate on? What kind of spiritual help can we receive when we meditate on Him?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